

주요 개념 : 자아개념, 지각, 신체노화

노인의 자아개념, 노화에 대한 지각 및 신체노화와의 관계 연구*

이영희·김문실**·최영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노화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 전체의 한 부분이며(장인협, 최성재 1987), 인간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노화현상에 대한 연구는 다차원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Naugarten, Binstock 1976). 이는 노년성 변화가 시작하는 시기가 개인차가 매우 심하고 동일 개체에 있어서도 각 기관에 의한 노화의 시작이 다르게 나타나며 또한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도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Rogers 1979, 최순남 1984).

노화에 대한 개인의 지각은 실제적인 신체노화 이상으로 개인이 노화현상에 심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최(1984)는 현대 노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제적인 문제와 의료적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회적 심리적 문제가 병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노인의 노화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소는 노인의 자아개념으로서(전재일 1978, 전산초, 최영희 1987)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최정훈 1983).

노년기에는 두 가지 커다란 심리적 적응의 문제를 갖게 되는데 배우자나 친구, 친족의 죽음과 같은 개인적 상실과 정년퇴직, 경제적 곤란, 노인에 대한 경시와 천대 등의 사회적 상실로 인한 환경적,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과, 개인의 성격적 특성, 신체적 질병, 신체체격과 외모의 노화같은 객관적인 변화를 지각하는 주관적인 내부적 요인을 들고 있다(윤진 1986).

노인의 모든 신체적 변화는 그의 신체에 대한 지각과 신체의 능력에 미치며(Peck 1956), 노화에 따른 노인 자신의 신체상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와 상호작용하여 노인에게 심리적 축면의 문제점도 야기시킨다(박재호 1985). 또한 노인에 있어 신체에 대해 다르게 지각하는 것은 정서적 부적응의 상태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Plutchik, Weiner, Conte 1971), Murray, Huelskötter, O'Driscoll (1980)은 노인들의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신체에 대한 부정적 지각은 사회적, 심리적 기술을 습득하고, 동료와 타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를 동일시함으로써 수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장개념 정도와 노화에 대한 지각 정도 및 실제적인 신체노화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노년기에 겪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심리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노인간호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자아개념 정도와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및 실제적 신체노화정도와 이 변수들

* 본 논문은 1987년도 한국생활과학연구원 연구비에 의한 연구임.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노년기의 노인이 신체, 정신, 사회심리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다.

1. 노인들의 자아개념 정도,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및 신체노화 정도를 파악한다.

2. 노인들의 자아개념정도,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및 실제적 신체노화정도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1). 노인들의 자아개념정도와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2).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와 실제적 신체노화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실제적 신체노화 정도와 자아개념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일반적 특성과 자아개념정도,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및 실제적 신체노화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자아개념

지각을 통제하고 영향을 주는 기본 변인으로 타인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개념 전체이다.

2) 노화에 대한 지각

각 개인의 독특한 준거의 틀에 근거하여 노화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반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 및 외모의 변화, 나이, 건강의 변화에 대한 지각정도를 측정한 점수이다.

3) 실제적 신체노화

기관조직 기능의 쇠퇴가 나타나고 생체의 적응능력이 감소되는 상태로서, 본 연구에서는 머리카락 및 피부의 노화정도를 기구 및 시진, 축진, 문진을 통해 측정한 점수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노화과정

노화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기체의 세포, 조직, 기관 또는 유기체 전체에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이다 (Beaver 1983).

그러나 노화과정은 단순히 한 측면에서만 이해하기는 곤란한 문제이며 생물학, 의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사회복지학 등이 협력함으로써 더욱 명확히 파악될 수 있다(윤 진 1986).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화에 관한 이론은 생물학적인 이론과 사회심리적 이론으로 논의된다(Murray, Huelskoetter, O'Driscoll 1980, Buckbank 1986, Naugarten 1968, 장인협, 최성재 1987).

간호학적 측면에서는 한 개인이 출생에서 전 생애의 과정을 통해 발생한 변화의 총합으로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및 개인의 주관적인 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나성숙 1979). Birren (1964)도 노화는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및 사회적 노화의 세가지 차원에서의 변화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인간은 모두 하나의 형태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갖는 신체적 및 생물학적 특성, 성격특성, 능력, 직업과 역할이 각각 다른 가운데 장기간 생활해가고 있으므로 노화과정, 노화시기에는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윤 진 1986).

그러므로 자연적인 노화현상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를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성공적인 노화과정에 대한 개인적인 노화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관건이 된다.

2. 노화에 대한 지각

old와 age란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self-image), 개인의 적응양식, 정서적인 갈등, 노인에 대한 과거경험, 사회문화적 배경, 종교, 개인의 연령에 따라 각자마다 다른 의미를 지닌다(Murray, Huelskoetter, O'driscoll 1980).

Rogers(1979)는 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노화에 대해 실제로 느끼는 것은 다르며 이런 지각은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부터도 유래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들 자신을 노인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며 실제보다 더 늦게 자신을 노인으로 본다(Bultena, Powers 1978, Botwinick 1984). 그러므로 Peck (1956)은 노화과정에 있어서 심리적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성공적인 노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노화로 인한 심리적 변화의 원인에 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으나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변화가 지각변화와 행동변화를 가져온다는 것과 일차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

다는 점이 중요시되고 있다(Snyder, Pyrek, Smith 1976).

Kern(1971)은 노인들이 노화과정에 대해 비관적인 느낌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Rogers(1979)도 문화와 시대에 따라 노화에 대한 태도가 다른데 대부분의 미국 노인들은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나이 그 자체보다는 노화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들, 특히 나쁜건강, 비활동성, 소외, 병원, 양로원과 같은 기관에 입원하게 되어 더욱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ageism”이란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Linn과 Hunter(1979)는 성격이 노화 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내적성향(internal locus of control)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자신을 더 쉽게 느낀다고 하였고, Preston(1968)은 실제적인 나이는 노화에 대한 지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아픈 것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Linn(1979)은 노인이 자신을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독립의 상실, 은퇴, 건강상실, 경제력의 저하 및 양로원 등의 기관보호 등을 들고 있다. Naugarten과 Petersone(1957)은 사회·경제적 상태가 노화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사회, 경제상태가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보다 더 일찍 노화를 지각한다고 하였다. Kogan(1979)은 여성이 남성 보다 더 빨리 노화에 대해 인지한다고 한 반면, Zola(1962)는 노화에 대한 지각이 성차와는 관계가 없었고, 실제적인 나이와도 관계가 없었으며 부모에 대한 과거의 느낌이 자신의 노화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3. 노인의 자아개념

자아는 현상적 장의 존재이고 행동의 준거가 되는 것으로 지각을 통제하고 영향을 주는 기본 벤인이다(최정훈 1983).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지만, 노인에 대한 연구는 회박하여 일반적으로 노인의 자아지각(self-perception)은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되어졌으나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노인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Simons 1985).

전(1978)은 동일한 노화 사실에 대해 각 사람들이 다르게 지각하는 것은 자아개념상의 심리적 문제라 하였고 노인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발감

퇴, 시력감퇴 등과 같은 신체적 요인과 정서적 기능의 저하, 타인이 노인이라고 평가하는 것 등과 같은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전체감정, 인식, 태도, 가치, 생활경험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Murray Huelskoetter, O'Driscoll 1980) 자아에 대한 지각으로 성별, 나이, 자신의 외모, 외모의 변화에 대한 지각 등을 포함한다(Yurick, Spier, Robb, Ebert 1984).

Bloom(1961)은 노인에 있어서 정서적 적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자신에 대한 지각이라고 하였으며, 자아개념 이론은 개인의 적응을 측정하므로써 노화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틀이라고 하였다.

이(1982)는 노인이 되어가면서 상실되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자아개념이라 하였고, Tuckman, Lorge(1954) Lancasrter(1981)는 노인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노화에 대한 문화적 태도와 고정관념이라 하였다.

Reid등(1977)에 의하면 노인에 있어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대상자의 내적성향과 관계가 깊다고 하였고, Lee(1976)는 수입, 사회적 접촉, 전장에 대한 인지상태가 노인의 자아개념과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Aitken(1982)은 나이 그 자체보다는 질병이나 불능이 노인의 부정적인 자아개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양로원에 있는 노인이 가정에 있는 노인보다 부정적인 자기 가치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4. 신체적 노화

Birren, Renner(1977)는 정상적 노화 과정이란 발생학적으로 유기체가 정상적인 환경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히 일어나게 되는 변화라고 하였다(윤 진 1986). 이러한 노인의 신체적 노화과정은 가정적, 문화적 환경, 활동 및 스트레스 등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으며(Hurtock 1968), 노화의 속도는 개인차가 있다(전산초, 최영희 1985).

노인의 신체적 변화가운데 주름진 피부와 머리카락의 변화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보이는 것으로(Porth, Kapke 1983), 노화에 따른 피부의 변화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외모적으로 중요하다(Carlsen 1975).

표피는 세포층의 수가 변화하지는 않으나 각질층(stratum corneum)은 평평해지고 얇아진다. 진피는 가장

현저한 변화를 나타내는데 피하지방이 감소하고, collagen 섬유가 짜딱해지고 glutamic acid와 lysine의 감소로 주름지고 탄력이 없으며 늘어진 피부를 나타내게 된다 (Berliner 1986, Carlsen 1975).

피지선의 활동감소와 땀샘의 감소, 각질층의 수분보유 능력의 감소와 수분상실로 피부는 건조해지며, 소양증과 피부낙설이 증가한다(Ebersole, Hess 1985, Steffl 1984, Frantz, Kinney 1986, Kligman 1979).

피지분비는 androgen의 영향으로 사춘기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남·녀 모두 중년기 이후 점차 감소되는데 남자의 경우는 10년간 23% 정도의 비율로 감소하며, 여자의 경우는 폐경기 이후 10년간 32% 정도의 비율로 감소한다(Pochi, Strauss, Downing 1979, Downing, Stewart, Strauss 1986), 또한 melanocyte의 활동불능으로 노인성 반점이 나타난다(Ebersole, Hess 1985). 머리카락은 모낭의 색소세포의 감소로 회색 또는 흰색으로 변하고, 모근의 조직이 위축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짧아진다(Uhler 1978, Ebersole, Hess 1985, Steffl 1984).

Ward(1984)는 노화의 영향이 노화에 대한 지각에 있어 중요한 이유는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고, 쇠(1984)는 모발의 변화, 피부의 주름, 노시, 피로감 같은 신체적 변화가 노화의 지각에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

Troll(1975)은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가치감이 다른 기준에 의한 것보다 그들의 변화된 외모에 의해 더 좌우되며 그로 인해 자기 가치를 낮게 본다고 하였다. 박(1969)도 노인들의 외관상의 변화는 직접 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늙었구나' 하는 느낌을 주며, 이러한 느낌은 노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신체적인 매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신체적 매력을 가진 사람은 좀 더 호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좀 더 따뜻하며, 사교적이며, 친절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사회적 이득을 얻게 된다고 한다(Adams, Huston 1975). 그러므로 신체적 노화로 인해 주름지고(wrinkled), 퇴화하고(deteriorated), 쇠퇴한(faded) 이런 외모의 특성은 노화를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Kligman, Graham 1986).

특히 신체적인 면에 대해 가치를 두어왔던 노인들은 그들의 신체가 늙었다고 지각하자마자 심리적으로 더 늙게 보이기 시작하며, 반면에 지적 혹은 직업적 능력 같은 비신체적인 특성에 자아개념을 두어왔던 노인들은

늙어서도 비교적 쉽게 느낀다고 한다(Rogers 1979).

이상을 통해 볼 때 노화에 대한 지각은 노인들의 자아개념에 중요한 변인이 되며, 또한 신체적 노화와 노화에 대한 지각, 신체적 노화 및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보면 노년기의 신체, 심리적 변화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고 이런 파악은 노인의 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 중재에 도움이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1개 양로원에 있는 여자 노인중 70명을 임의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60세 이상인 자
- 2) 질문지를 이해하고 자신이 응답할 수 있는 자
- 3) 정신질환의 병력이 없는 자
- 4) 연구에 참여를 허락한자

자료수집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는 졸업간호원 2명이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여 수집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1988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30일 간이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자아개념 측정도구 6문항, 피부 및 외모의 노화에 대한 지각 측정도구 13문항, 신체적 노화 측정도구 8문항 및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자아개념 측정도구

Jacox와 Stewart가 개발한 코오넬 의학지수(Medical Conell Index)의 J Subscal을 수정한 건강자아개념(Health Self Concept) 도구를 사용하였다. 코오넬 의학지수 J Subscale은 9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Jacox와 Stewart에 의해 7 문항으로 수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맞는 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노인간호학 교수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5단계 평정(건강하다 5-4-3-2-1 건강치 못하다)으로 된 Likert Scale로 최저 6점에서 최고 30점

가지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문항을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alpha=0.88$ 이었다.

2) 피부 및 외모의 노화에 대한 지각측정도구

노인들의 피부 및 외모의 노화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Secord와 Jourad에 의해 개발·수정된 신체 각 부분의 기능과 외모에 대한 개인의 만족·불만족 정도를 5단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신체만족도구(Body Cathexis Scale)와 장동환이 번역한 Osgood의 신체의미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기초로 하고 노인들의 피부 및 외모에 대한 지각에 관련된 문현을 참고하여 노인들에게 적절한 13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긍정적 문항에서는 '그렇다'에서 '그렇지 않다'까지 5점 평정척도로 점수화하고 부정적 문항에서는 역으로 환산하였다. 만족, 불만족으로 나타나는 문항에서는 '매우 만족스럽다'에서 '매우 불만족스럽다' 까지 5점 평정척도로 하였으며 이들의 전체점수는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에 대한 지각이 긍적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검사를 위하여 문항을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값이 $\alpha=0.81$ 이었다.

3) 신체적 노화 측정도구

노인들의 실제적 신체노화를 측정하는 도구는 노인의 신체노화와 관계된 문현을 참고로 하여, 피부 및 외모에 대한 실제적 신체노화를 중심으로 8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노인간호학 교수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피부의 탄력성, 노인성 반점, 피부의 소양감, 피부의 낙설상태, 머리칼 색깔 문항은 시진, 촉진, 문진을 통해 추정하였고, 표피온도, 표피의 피지, 표피의 수화 정도는 측정기계를 통해 측정하였다.

표피 온도는 digital surface Thermometer HCL-60으로 측정하였고, 대상자의 내측 전박에 Probe를 갖다 디어 계출기에 나타난 숫자를 기록하였다. 최저 28°C에서 최고 34°C 까지의 분포를 나타냈고 대상자 70명의 평균 표피온도는 31.6°C 였다.

표피의 피지는 Sebumeter SM 410으로 측정하였고, 대상자의 이마에 64mm²의 금속박을 부착시킨 후 계출기에 나타난 숫자를 기록하였다. 최저 7μg/cm²에서 최고 87μg/cm²의 분포를 나타냈고 대상자의 평균 표피피지는 20.9μg/cm²였다.

표피의 수화정도는 Corneometer CM 420으로 측정하였고, Probe를 대상자의 내측 전박에 부착시킨 후 계출기에 나타난 숫자를 기록하였다. 최저 166 unit에서 최고 996unit까지의 분포를 나타냈고, 표피의 평균 수화정도는 599 unit이었다.

표피온도, 피지, 수화정도는 대상자의 측정치 분포 범위에 따라 '많다', '보통이다', '적다'의 3등급으로 구분하였고, 피부의 탄력성 문항을 포함하여 '적다' 3점, '보통이다' 2점, '많다' 1점으로 배정하였고, 노인성 반점, 피부의 소양감, 피부의 낙설상태는 '적다' 1점, '보통이다' 2점, '많다' 3점으로, 머리칼 색깔은 '검정색' 1점, '회백색' 2점, '흰색' 3점으로 배정하였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8점에서 2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노화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방법

이상의 도구에 의해 측정된 자료를 S.P.S.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아개념정도,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및 신체노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치, 최대치,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고, 자아개념정도,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및 신체노화정도간의 상관관계를 검정하기 위해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자아 개념정도,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및 신체노화정도와의 관계는 t-검정과 ANOVA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자아개념정도와 노화에 대한 지각 정도 및 신체노화 정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자아개념정도,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및 신체노화 정도의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자아개념정도와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및 신체노화 정도

(N=70)

	최소치	최대치	평균	표준편차
자아개념	8	30	19.67	6.17
노화에 대한 지각	27	57	39.6	6.51
신체노화	11	20	14.09	2.05

대상자가 총 70명인 노인들의 자아개념정도는 최소 8점에서 최대 30점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 자아개념정도는 19.67점이었고, 표준편자는 6.17점이었다. 이는 이(1987)의 연구에서 양로원 노인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25.93 ± 2.47 점이었고, 김(1987)의 연구에서는 양로원 노인의 자아존중감 정도가 28.93 ± 8.28 점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둘은 최저 10점에서 최대 50점 범위의 도구로 측정한 것으로 이를 고려해보면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개념정도는 다른 연구결과와 비슷하며, 중간정도의 자아개념정도를 나타냈다.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는 최소 27점에서 최대 57점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점수는 39.6점, 편자는 6.51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가 중간정

도로 나타났다.

신체노화정도는 최소 11점에서 최대 20점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점수는 14.09점, 표준편자는 2.05점으로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중간정도의 신체노화정도를 나타냈다.

2. 자아개념정도, 노화에 대한 지각 정도 및 신체노화 정도간의 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인들의 자아개념정도,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및 신체노화 정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

	자아개념	노화에 대한 지각	신체노화
자아개념		0.4461 P=0.000	-0.1033 P=0.197
노화에 대한 지각			-0.2975 P=0.006
신체노화			

1) 자아개념정도와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와의 관계
노인들의 자아개념정도와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는 유의한 수준에서 순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amma=0.4461$, $P=0.000$).

Linn과 Hunter(1979)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들이 실제 그들의 나이보다 더 젊게 느끼고, 그들의 삶에 만족하였다고 하였고, Reid 등(1977)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노인들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높으며 좀 더 젊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Aitken(1982)

도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노인들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노인들 보다 자신을 더 늙었다고 여긴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아개념정도와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노인들이 자신의 노화를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2) 신체노화정도와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와의 관계
노인들의 신체노화정도와 노화에 대한 치각정도는

유의한 수준에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2975$, $P=0.006$)

Rogers (1979)는 신체노화에 따라 건강이 나빠지고, 비활동적으로 되고, 고독, 양로원 등의 기관보호 등이 초래됨으로 인해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Kligman과 Graham(1986)은 노화로 인한 노인의 신체적 외모가 그들의 자아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연구에서, 쉽게 보이는 외모를 가진 노인이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안녕의 차원에서 그들 자신을 더욱 좋게 평가함을 발견하였는바, 이 연구결과는 특히 신체적 차원의 안녕과 관련된 신체노화정도가 낮을수록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나타낸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김(1987)은 신체노화현상이 적게 나타난 노인일수록 자신의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신체상의 형성에 노화에 대한 지각이 기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신체노화와 노화에 대한 지각은 서로 관계되는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비록 신체적 노화가 심리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 할지라도 신체노화와 심리적 노화 간의 관계의 파악은 노화에 대한 지각의 조정을 위한 시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신체노화정도와 자아개념정도와의 관계

신체노화정도와 자아개념정도는 역상관관계가 있기는 하였지만 유의하지는 못했다($r=-0.1033$, $P=0.197$).

전과 최(1985)는 신체가 노화됨에 따라 신체 외모의 변화는 자아개념을 감소시키고 우울을 야기시킨다고 하였고, 박(1975)도 노인에게 오는 각종의 신체변화가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신감이 저하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신체노화정도와 자아개념정도간에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Tuckman, Lorge(1954), Lancaster(1981), Simon (1985)은 노인들의 자아개념은 신체노화보다는 노화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고정관념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고 하였고 Reid 등(1977)은 성격이, Lee(1976)는 건강에 대한 인식과 사회경제적 요인인, Aitken(1982)은 질병과 환경적인 변수가 노인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Taft(1985)는 노인의 자아개념은 신체적 자아, 지적 자아, 사회적 자아, 정서적 자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노인의 신체노화정도와 자아

개념정도는 역상관관계의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따라서 노인들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요소뿐아니라 정서적, 사회경제적 요소들도 간호에 포함해야 함을 암시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볼 때 노인들이 노년기에 겪는 신체, 정신, 사회심리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신체 노화에 따른 노화에 대한 지각과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돋는 간호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 일반적 특성과 자아개념 정도,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및 신체노화정도와의 관계

1) 일반적 특성과 자아개념정도와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자아개념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인 특성은 없었다(표3 참조).

이(1987)의 연구에서도 양로원 노인 집단의 자아존 중감정도는 연령, 교육정도, 종교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

표3. 일반적 특성과 자아개념정도,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및 신체노화정도와의 관계

2) 일반적 특성과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와의 관계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종교였다(표3 참조). 즉 종교를 가진 노인이($M=39.86 \pm 6.60$), 종교를 가지지 않은 노인보다($M=35.25 \pm 1.50$)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4.17$, $P=0.001$)

Kivett(1979)는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며 역할상실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종교생활은 노인에게 중요하며,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비공식적 사회자지 변인으로서 개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최(1985)도 종교생활은 노인의 상실감을 줄여주며 생활의 중요성과 유의미성을 인정하여 자신의 잠재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였고, 김(1983)은 종교생활이 중·노년기의 새로운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개인의 사고를 통합시켜 주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종교를 가진 노인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노인보다 노화를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노화에 대한 지각과 연령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F=0.383$, $P=0.766$).

전(1978)의 연구에서는 연령수준이 낮을수록 자기가 늙었다는 노화의식을 더 일찍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Zola(1962), Preston(1968)은 실질적인 나이가 노화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더욱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와 교육 정도도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F=1.118$, $P=0.348$).

최(1984)는 40·50대에는 교육정도가 낮은 사람이 노화를 더 빨리 지각하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노화에 대한 지각은 교육정도와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전(1978)의 연구결과에서도 노화에 대한 지각과 교육정도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표3〉 일반적 특성과 자아개념 정도,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및 신체화 정도와의 관계

일반적 특성	실수	자아개념 정도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신체노화 정도			
		평균	SD	F, t	P	평균	SD	F, t	P	평균	SD	F, t	P
연령													
60~90세	12	18.42±6.49		0.246	0.864	39.00±8.15		0.383	0.766	12.83±1.34		12.008	0.000
70~79세	25	19.56±6.06				40.68±5.99				13.12±1.36			
80~89세	29	20.24±6.35				39.14±6.46				15.03±2.08			
90세 이상	4	20.00±6.32				38.00±6.06				17.00±0.82			
교육정도													
무학	54	19.37±6.24		1.168	0.329	39.24±6.31		1.118	0.348	14.31±2.11		1.531	0.215
국졸	9	22.78±6.14				42.67±5.59				13.67±1.41			
중졸	3	20.00±4.58				35.67±6.66				12.00±1.00			
고졸	4	16.50±5.20				40.50±10.54				13.50±2.38			
종교													
유	66	20.02±6.14		1.93	0.058	39.68±6.60		4.17	0.001	14.08±2.06		-0.16	0.870
무	4	14.00±3.56				35.25±1.50				14.25±2.22			

3) 일반적 특성과 신체노화정도와의 관계

신체노화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연령이었다(표3 참조). 즉 연령이 많아질수록 신체노화정도가 높았다($F=12.008$, $P=0.000$).

김(1984)과 김(1987)의 연구결과에서도 연령이 많아질수록 신체노화현상이 많이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신체적 노화가 시간이 흐름에 따른 정상적인 노화과정임에(윤진 1986)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신체 노화정도와 종교와의 관계는 김(1984)의 결과에서는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없는 집단보다 높은 노화현상을 나타냈고($P<0.01$), 김(1987)의 결과에서는 종교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신체노화정도와 교육정도와의 관계는 김(1984)과 김(1987)의 연구결과 모두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노화현상이 적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앞의 두 연구는 대상자의 호소증상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측정한 결과이며 본 연구는 실제적으로 기계 및 시진, 촉진, 문진을 통해 측정한 결과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신체노화정도로 측정하였던 피부 및 의모의 노화는 과거에 햇빛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었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Carlsen 1975, Kligman, Graham 1986, Porth, Kapke 1983, Ebsersole, Hess, 1985), 또한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Rogers 1979)고 하였으므로 이런 변수들도 고려하여 더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노인들의 자아개념정도,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및 신체노화정도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노년기의 노인들이 신체, 정신, 사회심리적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1988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 까지 서울에 위치한 1개 양로원에 있는 여자 노인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및 측정기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Jacox와 Stewart의 건강 자아개념(Health Self Concept)도구를 수정한 자아개념 측정도구와 Seward 와 Jourard의 신체만족도구와 Osgood의 신체의미척도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노화에 대한 지각 측정도구로 사용하였고, 실제적 신체노화는 측정기구, 시진, 문진, 축진을 통해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에 의해 산술평균,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들의 자아개념정도는 평균 16.97점($SD=\pm 6.17$ 점)이었고,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는 평균 39.6점($SD=\pm 6.51$ 점)이었으며, 신체노화정도는 평균 14.09점($SD=\pm 2.05$ 점)이었다.

2. 노인들의 자아개념정도,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및 신체노화정도간의 관계

1) 자아개념정도와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는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어 자아개념 정도가 높을수록 노화에 대한 지각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r=0.4461, P=0.000$).

2) 노인들의 신체노화 정도와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는 유의한 수준에서 역 상관관계가 있어 신체노화 정도가 적을수록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r=-0.2975, P=0.006$).

3) 노인들의 신체노화정도와 자아개념 정도는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r=-0.1033, P=0.197$)

3. 일반적 특성과 자아개념정도,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및 신체노화 정도와의 관계

1). 노인들의 자아개념 정도와 관계있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없었다.

2). 노인들의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와 관계있는 특성은 종교였다. 즉 종교를 가진 노인이 종교를 갖지 않는 노인보다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가 높아 종교를 가진 노인이 노화를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알 수 있었다($t=4.17, P=0.001$)

3). 노인들의 신체노화정도와 관계있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이었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신체노화정도가 높았다($F=12.008, P=0.000$).

이상의 결과를 통해 노인들의 자아개념 정도와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 및 신체노화정도와 노화에 대한 지각정도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신체노화정도와 자아개념 정도는 유의하지는 못했지만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신체노화에 따른 노화에 대한 지각과 자아개념을 긍정적 갖도록 하기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신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정서, 사회경제적인 요소들도 간호중재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각 변수간의 관계연구를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2. 양로원 노인뿐 아니라 재가 노인과의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3.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간호중재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요구된다.

4. 신체노화 측정도구를 연구에 활용함에 있어, 신체노화에 따른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도구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김명옥, 중년기 이후의 노화현상에 관한 분석적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84.

김봉숙, 노화단계에 따른 장년 및 노인의 신체상과 신체적 노화현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87.

김수민, 도시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83.

김옥수,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불안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1987, 52:8, 517~524.

나성숙, 시설노인의 사회간호학적 실태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79.

박재술, 노인문제와 대책, 이우출판사, 1969.

박재호,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지각과 태도, 노화 노인문제-비교 문화론적 고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5.

박조열, 노인의 정신위생에 관한 연구, 부산의사회지, 1975, 11:5, 38~45.

윤진, 성인 노인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986.

이경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87.

이선자, 노인의 건강에 대한 욕구-신체적 건강과 간호, 대한간호, 1982, 12:1, 15~18, 1982.

장인협, 이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전산초, 최영희, 노인간호학, 수문사, 1985.

전재일, 노인으로서 자기개념의 기대와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 1집, 한국사회사업대학 노인복지 연구소, 1~23, 1978.

최순남,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홍익재, 1984.

최정훈, 「지각심리학」, 을유문화사, 1983.

최신덕 역, 노년사회학, 경문사, 1985.

Adams, G. R., T. L. Huston, Social Perception of Middle -Aged Persons Varying in Physical attractiv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11:5, 657~658, 1975.

Aitken, M. J., "Self-concept and functional Independence in the Hospitalized Elderly",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982, 36:4, 243~250.

Beaver, M. L., *Human service Practice with the elderl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83.

Berliner, H., "Aging Skin", *A, J, N*, Oct., 1138~1141, 1986.

Birren, J. E., *The Psychology of Aging*,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4.

Birren, J. E., V. J. Renner, Research on the Psychology of Aging Principles and experimentation,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J. E. Birren, K. W. Schaie (eds),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77.

Bloom, K. L., Age and the self concep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18, 534~538, 1961.

Botwinick, J., *Aging and Behavior*, 3rd ed, New York, Springer Pub, Comp. 1984.

Bultena, G. L., E. A. Powers, Denial of Aging : age identification and reference group orientation, *Journal of Gerontology* 1978, 33, 748~754.

Burbank, P. M., Psychosocial theories of Aging : A critical evaluation, *ANS*, 1986, 94, 73~86.

Carlsen, R. A., Aging Skin : Understanding the inevitable, *Geriatrics*, 1975, Feb, 51~54.

Downing, D. T., M. E. Stewart, J. S. Strauss, changes in sebum secretion and the sebaceous gland, *Dermatologic Clinics*, 1986, 4:3, July, 419~423.

Ebersole, P., P. Hess, *Toward Healthy Aging ; Human needs and Nursing Response*, 2nd ed., Mosby Comp., 1985.

Frantz, R. A., C. K. Kinney, Variable associated with skin dryness in the Elderly, *NR*, 35:2, 98~100, 1986.

Hurtock, E. B., *Development Psychology*, New Delhi, McGraw Hill-Co., 1968.

Kern, R. A., Emotional Problems in relation to Aging and old age, *Geriatrics*, June, 83.

Kivett, V. R., Religious Motivation in middle age correlates and implication, *Journal of Gerontology*, 1979, 34, 106~115.

Kligman, A. M., "Perspectives and problems in cutaneous gerontology", *The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1979, 73, 1, 39~45.

Kligman A. M., J. A. Graham, The Psychology of Appearance in the Elderly, *Dermatologic Clinics*, 4, 3, July, 1986, 501~507.

- Kogan, N., A Study of Age Categorization, *Journal of Gerontology*, 1979, 34, 358~367.
- Lancaster, J., Maximizing Psychological adaptation in an aging Population, *T. C. N.*, 31~43, 1981.
- Lee, R. J. "Self images of the Elderly,"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11 : 1, mar., 1976, 119~124.
- Linn, M. W., K. Hunter, Perception of Age in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1979, 34, 46~52.
- Murray, R., M. M. Huelskoetter, D. O'Driscoll, *The Nursing Process in Later Maturit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Inc., 1980.
- Naugarten B. L., *Middle Age and Aging;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 Naugarten, B. L., R. H. Binstock., *Handhook of Aging and the Sociae Science*, New York, Van Nostrand Comp., 1976.
- Naugarten, B. L., W. A. Peterson, A study of American age-grade system, proceedings of the four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 3, 497~502, 1957.
- Peck, R., Psychological developments in the second half of life, Psychological aspects of Aging, J. E. Anderson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ton D. C., 42~53, 1956.
- Plutchik, R., M. B. Weiner, H. Conte, Studies of Body image : Body worries and Body discomforts, *Journal of Gerontology*, 1971, 26, 5., 344~350.
- Fochi, P. E., J. S. Strauss, D. T. Downing, Age-related change in sebaceous gland activity, *The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1979, 73, 1, 108~111.
- Forth, C. K. Kapke, Aging and the skin, *Geriatric Nursing*, 1983, May / June, 158~162.
- Prestone, C. E., Subjectively perceived Agedness and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1968, 23, 201~204.
- Reid, D. W., G. Hass, D. Hawkings, Locus of Desired Control and Positive self concept of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1977, 32, 4, 441~450.
- Rogers, D., *The Adult Years; An Introduction to aging*,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79.
- Rosow, I., *Socialization to old age*, Berkely Calif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 Simons, J., Does incontinence affect Your Client's self concept?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985, 11 : 6, 37~40.
- Steffle, B.M., *Handhook of Gerontological Nurs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 1984.
- Synder, L. H., J. Pyrek, K. C. Smith, Bision and mental function of the elderly, *Gerontologist* 1976, 16 : 6, 491~495.
- Taft, L. B., self-esteem in Later Life;a Nursing Perspective, *ANS*, 1985, 8, 1, 77~84.
- Troll, L. E., *Early and middle Adulthood*, Mansterey, calif : Brooks core publishing co, 1975.
- Tuckman, T., I. Lorge, Classification of the self as Young, middle-Aged orold, *Geriatrics*, 1954, 534 ~536.
- Uhler, D. M., Common skin changes in the elderly,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978, Aug, 1342~1344.
- Ward, R. A., Images of Aging ; Personal and Social, *The Aging experience;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2nd ed., New York, Happer & Row, Pub., 1984.
- Yurick, A. G., B. E. Spier, S. S. Robb, N. J. Ebert., *The Aged Person and the Nursing Process*, 2nd ed., Norwalk, Connecticut, Acc., 1984.
- Zola, I. K., Feelings about age among older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1962, 17, 65~68.

—Abstract—

Relationships Among Self-Concept,
Perception of Aging, and
Physical Aging

Lee, young Hee*. Kim, Moon Sil* Choi, young Hee**

Although everyone grows old, perception about the aging process and aging as measured physiologically vary widely. Perceptions of aging have psychologically influence on physical aging.

* Supported by Institute for Better Living

** Ewha Womans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concept, perception of aging, and physical aging in the elderly and to contribute to the theory development which may direct nursing intervention to promote well-being of the aged.

Subjects were 70 women residents of a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in Seoul.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May 15 to June 15, 1988 using interview schedules and mechanical instruments. The instruments were selected items from the Health Self Concept Scale developed by Jacox and Stewart for self concept, and Secord and Jourad's Body Cathexis Scale and Osgood's Semantic Differential Scale for perception of aging. Physical aging was measured by mechanical instruments, inspection, questions, and palpation.

The data were analysed for mean,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an S.P.S.S computerized progra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1. The mean level of self concept for the subject group was 16.97($SD=\pm 6.17$) in a range from 6-30. The mean level of perception of aging was 39.6. ($SD=\pm 6.51$) in a range from 13-65. The mean level of physical aging was 14.09($SD=\pm 2.05$) in a range from 8-40.

2. Relationships among self - concept, perception of aging, and physical aging.

- 1)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perception of aging($r=0.4461$, $p=0.000$).
 - 2)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ging and perception of aging($r=-0.2975$, $p=0.006$).
 - 3) There was a tendency towar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aging and self-concept, but not a significant relationship ($r=-0.1033$, $p=0.197$).
3. 1) No general characteristic variables were related to self concept.
 - 2) The general characteristic variable related to the level of perception of aging was religion ($t=4.17$, $p=0.001$).
 - 3) The general characteristic variable related to the level of physical aging was age ($F=12.008$, $p=0.000$).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and perception of aging, and between physical aging and perception of aging.

Therefore nursing intervention should focus on promoting a positive perception of aging and strengthening self-concept during the physical aging process.